

인사의 말씀

정미라 (부회장 ; 경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안녕하십니까?

e-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에서 육아지원기관은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과 유치원 시범평가 등을 통하여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과 유치원 시범평가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부모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주는 육아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나 교육내용, 교육환경의 질 등이 보장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최근 외국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의 효과를 발달적, 교육적 차원에서는 물론 교육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한국육아지원학회에서는 지난 동계 방학기간에 6차례에 걸친 연구 소모임을 통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아교육의 장단기 효과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선행 종단적 연구 결과를 열심히 조사하여 발표해주신 회원님들의 노고도 컸지만, 참석해 주신 많은 회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기에 그 의미도 컸었습니다. 동계 방학 중 연구 소모임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를 종합하여 이번 춘계 학술대회에서 회원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는 앞으로도 소연구모임을 통해 국내·외 육아지원 관련된 주요 학문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연구 소모임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활성화되고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은수(덕성여자대학교)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기 위한 국가의 책무성은 우수 인적 자원의 개발이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활동인구의 급증에 따른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생애초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왜 생애초기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영국의 2000년 이후 영유아기 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Effectiv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EPPE)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자인 Oxford대 Kathy Sylva 교수와 그의 동료인 London대 Edward Melhuish 교수는 그 해답 중 하나는 생애초기의 경험이 생애 후기의 인생에 심각하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적 연구의 축적된 증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의 뇌인지 과학을 통한 실증적 증거, 영유아기 교육 기회 박탈에 의한 생애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은 생애초기 양질의 교육, 그 중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James Heckman 교수도 출생에서 초등학교 이전에 결정된 중요한 정신적 행동적 패턴은 아동이 학교에 들어간 후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제안하고 있다. Heckman 교수의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이러한 충고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미국 유아학교(preschool)의 종단 연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결론이다. 인생의 각 단계를 통한 투자와 수익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Heckman의 생애 전반에 대한 편익 곡선은 2006년 'OECD Start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인용되어 최근 영유아기 교육의 증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Heckman(2005)의 이 편익 곡선은 양질의 유아학교(preschool)에 대한 종단 연구의 결과분석에 의한 것이다. Heckman은 Schweinhart (2006)의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에 첨부된 Commentary에서 생애 지속적 경제 효과는 양질의 3, 4세 유아학교 경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Sweinhart(2006)도 Michigan 주 교육부 재정 지원에 의하여 1962년에 시작된 High/Scope Perry Preschool과 동시대에 사회복지부에서 지원된 Head Start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다를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국가의 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은 국가적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해결과제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출산을 과거에 경험한 OECD 선진국과 아시아 경제 선진국,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은 영유아기 교육을 강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이들 국가는 최근까지 이원화되었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유아교육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행정체계도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국가들의 영유아교육 정책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종단 연구의 결과가 그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노르딕 국가(스웨덴, 노르웨이)보다 영유아기 공교육 체제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미국과 영국의 2000년 이후 0-5세 영유아교육 체제의 변환을 시도하게 한 결정적 계기는 유아학교(preschool)의 교육 및 경제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본 필자를 포함한)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출생에서 6세 미만의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하여 현재까지의 영유아교육(보육) 체제가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에 적합하였는지를 반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보육이 활성화된 199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의 영유아기 교육(보육)을 평가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 이후 미국의 Prekindergarten 체제를 구축하게 한 High/Scope Perry Preschool 프로그램의 종단연구를 숙고하여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62년에서 1967년까지 Michigan 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3, 4세 유아원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1962년-1967년 프로그램 적용을 받은 3, 4세 유아 58명과 비교 대상 65명에 대한 종단 연구로서, 연구 대상의 5세에서 10세, 14-15세, 19세, 27세, 40세까지의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유아원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Rutgers 대학의 Steve Barnett교수는 이 종단연구의 27세까지 사회 경제적 효과를 적용하여 1998년 미국 New Jersey주의 Abbott School District(교육구(청))를 상대로 보편적 공립 유

아학교를 설립하게 만든 Abbott 대 Burke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었다. 이 New Jersey 주의 대법원 판례는 Massachusetts주의 Hancock 대 Driscoll 재판에도 영향을 주어 미국의 3, 4세 공립 유아학교 구축을 위한 정책 시발점이 되었다. 더 나아가 2008년 현재 미국의 Columbus School District를 포함한 52개 주는 3, 4세 Prekindergarten 구축을 위한 법령 제정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도 1997년부터 Effectiv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EPPE) 프로젝트를 통하여 3000명의 만 5세 이전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8년 현재 추후 10년간의 연구비를 통하여 장기적 종단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1999년부터 영국의 사회복지와 교육으로 이원화되었던 보육과 유아교육 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계기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영국의 3, 4세 유아교육을 기간학제인 Foundation Stage로 구축하게 하였으며, 2008년부터 시행될 출생에서 3세 미만의 Early Years of Foundation Stage의 교육부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2007년 6월부터 가족문제까지 통합한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의 교육부 명칭의 전환과 출생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 강화하는데 강력히 기여하였다.

교육선진국의 종단연구는 생애초기 양질의 교육, 즉 영유아기의 공교육 체제가 국가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강한 해안을 제공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양질의 영유아교육의 핵심과 생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있게 고찰하는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이다.

1. 학회활동보고

1)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① 2007년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 학술대회
 - 일시 : 2007년 11월 10일 (토) 오전 9시 ~ 14시 30분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420호 대강당
 - 학술대회 주제 :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과 유아교육의 과제
 - 학술대회 참석인원 : 267명
- ② 한태평양영유아교육연구학회(PECERA) 한국학회 공동세미나
 - 일시 : 2007년 11월 23일 (금) 오전 9시 ~ 12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제 : 차기정부에 바란다 - 유아교육의 정책방향

2) <육아지원연구> 발간

- 제 2권 1호 발간 : 2007년 4월자로 발간 (총 7편의 논문이 실림)
- 제 2권 2호 발간 : 2007년 10월자로 발간 (총 8편의 논문이 실림)

3) 연구모임

- ① 제7회 연구모임
 - 일시 : 2007년 6월 15일 (금) 오후 5:00 ~ 7:0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313호 다매체회의실
 - 주제 : 유아를 위한 교육적 놀이 활동 운영
 - 발표 : 홍용희(이화여대 교수)
 - 참석인원 : 22명
- ② 제8회 연구모임
 - 일시 : 2007년 10월 19일 (금) 오후 5:00 ~ 7:0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313호 다매체회의실
 - 주제 : 유아의 Narrative 발달 연구
 - 발표 : 이지현 (건국대 교수)
 - 참석인원 : 19명
- ③ 제9회 연구모임(제1차 재정세미나)
 - 일시 : 2007년 11월 21일 (수) 오후 6:00 ~ 8:00
 - 장소 : 배화여자대학교 목련관
 - 주제 : 유아교육재정 특강
 - 발표 : 임준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과장)
- ④ 제10회 연구모임(제2차 재정세미나)
 - 일시 : 2007년 11월 26일 (월) 오후 6:00 ~ 8:00
 - 장소 : 배화여자대학교 목련관
 - 주제 : 국가 재정운용과 교육예산
 - 발표 : 박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총괄과장)

4) 2007년 하계세미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

- 일시 : 2007년 7월 9일 - 8월 20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총 8회)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463호
- 주교재 : Corsaro, W. (2005). The sociology of childhood. (2nd ed.).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세미나 leader : 전홍주 (이화여대 강사),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

5) 2008년 동계세미나 - 유아교육의 종단적 효과 연구

① 제1차 모임

- 일시 : 2008년 1월 14일(월)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18호
- 주제 : Pre-K
- 발표자 :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 참석인원 : 20명

② 제2차 모임

- 일시 : 2008년 1월 21일(월)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18호
- 주제 : Perry Preschool Program
- 발표자 : 전홍주 (배재대 교수)
- 참석인원 : 22명

③ 제3차 모임

- 일시 : 2008년 1월 28일(월)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18호
- 주제 : EPPE 연구
- 발표자 :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
- 참석인원 : 25명

④ 제4차 모임

- 일시 : 2008년 2월 4일(월)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18호
- 주제 : NICHD 연구
- 발표자 : 배지희 (성신여대 교수)
- 참석인원 : 37명

⑤ 제5차 모임

- 일시 : 2008년 2월 11일(월)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18호
- 주제1 : Head Start Program
- 발표자1 : 안혜준 (중앙대 강사)
- 주제2 : Abecedarian & Chicago parent-child center program 연구
- 발표자2 : 이민정 (경남대 교수)
- 참석인원 : 16명

2. 회원동정

<임용 소식>

- 전홍주 :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임용(2008 학년도)
- 심성경 : 원광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취임(2008. 3. 5)

<저서 발간 소식>

- 심성경, 이선경, 변길희, 김나림, 박주희(2007), 유아를 위한 동작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심성경, 백영애, 이영희, 이효숙, 박지애, 박주희(2007), 유아미술교육. 공동체
- 유수옥(2008). 성공적인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 이해교육.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248집
서울 : 집문당
- 이기숙, 김정원, 이현숙, 전선옥(2008). 영유아교육과정. 서울 : 도서출판 공동체

<수상 소식>

- 권용은 :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